



Jean-Pierre Frimbois, France

Editor of Art Actuel Magazine

Critique | A like Animal(s), A like Architecture(s), D like Dream(s), I like Imagination...

One of the three proposals of the Shin Sang-Ho exhibition at the Clayarch Gimhae Museum is called Structure & Force. It shows well-known pieces and other recent ones that put forward the notion of architecture. In the Ego series, for instance, there is an introspective view of the artist regarding the search for an abstract figure trying to deconstruct or even distort the traditional animal architectural structures, which favour movement. A new range of colours also appears, to give a better structure to this new approach and make it coherent with the Fired Paintings series.

We saw, in previous exhibitions, the association between Animal series and some geometrical motifs, squares or diamonds taken from the Fired Paintings series. The juxtaposition of those two groups works really well and puts the emphasis on Shin Sang-Ho's choices regarding his interpretation of the animal world.

In some pieces, we see that the upper part of a horse's body is interpreted on the aesthetic side by a figurative emphasis put on the horizontal notion, whereas the horse's legs have been designed with a minimalist, if not abstract verticality. The limbs have become pillars, - the basis of all architecture. In other pieces, the approach is more radical. If there still is the notion of a head, voluntarily minimalist, the body per se has become a house, even offering a few openings, like many windows aiming at focusing our attention on those two notions of Structure and Strength that are so dear to Shin Sang-Ho. The way the animal limbs are treated has changed: some legs are thin and elegant, but we also see some panels appearing, so the whole piece sometimes rests on a wooden structure.

The third step is the Ids series, in which the body itself becomes an architectural structure.

At the beginning of Shin Sang-Ho's approach are the Earth and the Water.

The Earth as primary chaos, made up by rain, hence by water. The Earth, in Vedic religion which is a primitive form of brahmanic religion in India, symbolizes the mother, life source, and protector against any form of destruction. The Earth can always be reborn in another form,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s of ceramic art. Water as the ultimate seed containing promises of growth. In association with the Earth, it is the key to cohesion. As an artist, one has to be able to pick up its primary energy, the one that makes it run down, following the slopes of the land. The artist has to raise things, give an architectural structure, immobilise the water stream. Water as the origin of creation. Water as gathering. The gathering of men or herds around water sources, necessary to maintain animal and human life.

The animals stand on their legs to drink and lower their thirsty snouts towards their liquid saviour. This natural and bodily architecture, can be felt in many of Shin Sang-Ho's animalist pieces. In Africa, for Dogons in Mali and North Burkina, water, divine seed is also light and speech. This should also be felt in a successful ceramic piece. The notion of entanglement is also important in Shin Sang-Ho's sculptures, entanglement like the one that links the upper part of the animal to its more stylised lower part, reminding us of a house's foundations.

Nature becomes structure. The horse is also a recurring presence. Like water he is a vessel for man and can transform, according to a legend from Kirghizistan into a magical animal that can talk like a man and allows his rider to elude obstacles. In other legends, the horse can make sources spring under its hooves. Often, Shin Sang-Ho's horses are white. Is it then the famous solar horse, image of accomplished beauty? Other horses sculptures are masked. Should we interpret them as African masks that became moving sculptures, able to channel spiritual energies throughout the world? Shin Sang-Ho created an impressive group of Heads, symbols of the spirit. Some of them seem to refer to the Egyptian god of gods, Amon-Ra, often pictured as four ram heads. This might be why unconsciously, Shin Sang-Ho represents them as antique pillars, fundamentals of all architecture.

Multicoloured birds also appeared in his work. Here's a blue bird, maybe from the Han dynasty, immortal magician and messenger. Here's a red and yellow bird, which, to Chinese people, symbolizes chaos. The bird is common imagery in African art, especially on masks. It symbolizes power and life. He triumphs over the snake, in other words over potential death. Shin Sang-Ho's birds might be Yakoutes from Siberia, that became bird souls, perching on the branches of the World Tree, allowing the three levels of cosmos to communicate: the underground, the earth surface and heights. This is our world's architecture.

The heights are the ones of the Long Neck statues of Shin Sang-Ho. The heads are thin, the body is rectangular, and the legs are very straight, as if allowing vital flux to reach the coloured eye at the end of all the statues' necks. A single eye that symbolizes divine knowledge. One can also see in it the eye of the world, the famous door of the sun, both gaze and crossing. In Africa, the nomadic Bambaras from Mali, Senegal, Ivory Coast and Burkina believe the eye represents entirety, beauty, light, world, universe and life.

The eyes of Shin Sang-Ho's statues look in those directions, as well as another direction dear to him: freedom of creation. Those eyes seem to look for ours to remind us of that.

The animal architectures of Shin Sang-Ho send us their messages. We can receive and interpret them as we wish, because everything is in the imagination or in the dream of the one who looks. What will the next step be for Shin Sang-Ho?

Allowing us to make an assumption. When we look at the Cubic House ? third section of the exhibition, Fired Painting, we can imagine that the animals could integrate this house, or why not become a house themselves.

Shin Sang-Ho's work would then become a fusion of the genres.



Jean-Pierre Frimbois, France | 장삐에르 프랭부아
Editor of Art Actual Magazine

비평 | A like Animal(s), A like Architecture(s), D like Dream(s), I like Imagination...

클레이아크 김해 박물관에서 열리는 신상호 전시 세계 중 하나의 제목은 Structure & Force이다. 이 전시에서는 이미 알려진 작품들과 건축 개념이 돋보이는 그의 최근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Ego시리즈에서는 움직임의 개념을 중시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동물 건축 구조를 분쇄시키는, 더 나아가 그것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겨냥한 어떠한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작품 방식을 더 잘 조직하고, 신상호 작업의 다른 일면인 Fired Paintings이라는 작품 시리즈와의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컬러들이 그의 작품에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상호의 이전 전시회에서는 동물들과 Fired Paintings시리즈에서 비롯된 사각형이나 마름모형의 기하학적인 소재들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소재의 병렬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으며 동물 세계에 대한 신상호 개인적인 해석에 관한 선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몇몇 작품에서는 말 몸체의 상반부가 상형적이라 할 수 있는 수평의 개념을 강조한 미적인 차원에서 해석된 것이 보이는 한편 말의 다리는 최소화된,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직 형태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다. 말의 사지가 건축의 기본인 기둥이 된 것이다. 다른 작품들의 전개는 더 극단적이다. 동물들의 머리가 계속 고의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졌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몸은 집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마치 창문처럼 열려진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마치 신상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구조와 힘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의 사지 처리도 바뀌었다. 어떤 다리들은 우아하고 가느다랗게 표현되었는데 패널이 사용돼 어떤 동물의 다리들은 때로 이 나무 판자 위에 놓여져 있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의 몸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건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lds 시리즈이다.

신상호의 첫 작품 전개는 땅과 물이었다. 최초의 혼동상태로써의 땅은 비, 즉 물로 만들어졌다. 인도 바라문교의 원시 형태인 베다 종교에서 땅은 모든 소멸의 형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삶의 원천인 어머니로 상징된다. 땅은 언제나 다른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요업 창조의 기본 원리이다. 물은 발전의 모든 약속을 담고 있는 씨앗이며 땅에 결합된 물은 응집력의 열쇠이다. 아티스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경시한 땅을 따라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만드는 이런 최초의 에너지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아티스트는 무언가를 양육하고, 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즉 물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창조의 근본으로써의 물, 모임으로서의 물, 인간, 동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동물의 무리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물가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물을 더 잘 마시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로 든든하게 몸을 받치고 있고 생명 구제의 수면을 향해 목마른 주둥이를 가까이 가져간다. 신상호 동물 조각의 많은 작품에서 공간에 등록된 신체적이고 자연적인 건축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와 부르키나 북쪽의 도공족에게 신의 씨앗인 물은 빛이여 말씀이다. 성공한 도자기라면 이런 것들을 뿔어내야 한다. 신상호의 조각들에서 동물의 상반부와 하반부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맞붙임의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동물의 하반부는 양식화 되고, 단단한, 때로는 한 집의 기반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 것들이다. 즉, 자연이 구조가 된 것이다. 인간의 오래된 선박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키르키즈스탄의 전설에 따르면 말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말을 탄 기사에게 모든 계락을 피해가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동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서 이 동물은 발굽을 부딪힘으로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기도 하다. 신상호의 말들은 흰색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완성된 아름다운 상징인 그 유명한 태양의 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한편 다른 말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 가면들은 세계에 퍼져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움직이는 조각이 된 아프리카 가면들로 이해해야 할까? 신상호는 드러난 정령의 상징인 머리들의 조화를 창조했다. 어떤 것들은 머리가 네 개 달린 양의 형태로 표현된 이집트 신인 아몬라를 연상케 한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신상호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건축의 기본적인 지주인 고대 기둥의 형태를 작품들에 적용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작품 중에는 다색의 새들도 있다. 마치 불멸의 마법사이며 메신저인 중국 한 시대의 새를 나타내는 듯한 파란 새가 있다. 중국인에게 혼란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새도 있다. 새는 또한 아프리카 예술, 특히 가면에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며 힘과 삶을 상징한다. 뱀을 쓰러뜨리는, 다시 말해 파충류로 강생하여 잠재적인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새가 아니던가? 신상호의 새들은 지하, 지상, 높이라는 우주의 세 단계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세상의 나뭇가지에 얽은 채로 영혼의 새가 되어버린 시베리아의 야쿠트 새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상호의 Long Neck 조각들은 높이를 상징한다. 머리들은 뾰족하고 몸은 직사각형이다. 다리는 마치 삶의 밑물을 더 잘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진 듯이 아주 깨끗하며 생명의 입김은 모든 조각들의 긴 목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변모한 색상의 눈에 이른다. 눈꺼풀이 없는 외눈은 숭고한 지식을 상징한다. 그 눈은 또한 시선과 통로인 태양의 문, 세상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 부르키나에 살고 있는 유목민인 밤바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그들에게 눈은 아름다움, 빛, 세계, 우주, 삶의 개념을 통괄하는 전체의 상징이다. 신상호 조각들의 눈은 이런 모든 방향들을 향해 있다. 또한 그 조각들은 작가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창조의 자유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기도 하다. 조각의 눈들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신상호의 동물 조각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들을 받고 적절하게 해석하자. 모든 것은 작품을 보는 사람의 꿈과 상상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신상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작가의 세 번째 전시 주제인 Fired Painting의 Cubic House로 미루어 보건대 동물들이 이 집과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동물들이 집 자체가 되어도 되겠다. 그럴 때 신상호는 작품은 퓨전 장르가 될 것이다.